

赤白何烏寬中湯의 基源, 變遷過程 및 構成原理

신승원* · 김윤희 · 유정희 · 이준희 · 고병희 · 이의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ve Principles of *Jeokbaekhaogwanjung-tang*

Seung-Won Shin*, Yun-Hee Kim, Jeong-Hee Yu, Jun-Hee Lee, Byung-Hee Kho, Eui-Ju Le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 Objectives

This paper was written to understand the origin, changes and the constructive principles of Jeokbaekhaogwanjung-tang(Chibaihewu-tang; 赤白何烏寬中湯).

2. Methods

Jeokbaekhaogwanjung-tang and other related prescriptions were analyzed in terms of pathology, based on 『Donguibogam(東醫寶鑑)』, 『Donguisusebowon·Chobongwon(東醫壽世保元·草本卷)』, 『Donguisusebowon·Gabobon(東醫壽世保元·甲午本)』, 『Donguisusebowon·Sinchukbon(東醫壽世保元·辛丑本)』 and 『Donguisasangsinpyeon(東醫四象新編)』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origin of Jeokbaekhaogwanjung-tang, which inherited the spirit of Zhang, Zhongjing(張仲景)'s Sasim-tang(Xixin-tang; 瀉心湯), is discovered in the prescriptions for Sun-qi(順氣), that is, Gwanjung-hwan(Kuanzhong-wan; 貫衆丸) and Mokhyangsungi-san(Muxiangshunqi-san; 木香順氣散).
- 2) The Jeokbaekhaogwanjung-tang was derived from Gangchulpajeok-tang(Jiangzhupoji-tang; 薑朮破積湯) of 『Dongyisusebowon·Gabobon』, where the herbal medicines, Panax ginseng(人蔘) of Sasim-tang was replaced with Cynanchum wilfordii(白何首烏) and Allium sativum(獨頭蒜) was newly used too. Thereafter, Polygonum multiflorum(赤何首烏) and Alpinia oxyphylla(益智仁) were first added in Jeokbaekhaogwanjung-tang in 『Sinchukbon』.
- 3) The Jeokbaekhaogwanjung-tang, composed of 8 herbs except for Zizyphus jujuba(大棗), treats Taeumjeung(太陰證) of Soeumin(少陰人) through warming the Stomach(溫胃) of Cynanchum wilfordii, Polygonum multiflorum, Zingiber officinale(乾薑) and Alpinia officinarum(良薑) and downbearing the Yin(降陰) of Citrus reticulata(青皮), Citrus unshiu(陳皮), Cyperus rotundus(香附子) and Alpinia oxyphylla.

Key Words: Jeokbaekhaogwanjung-tang (Chibaihewu-tang), Origin, Change, Composition

• 접수일 2009년 11월 03일; 심사일 2009년 11월 03일;
승인일 2009년 11월 26일
• 교신저자 : 이의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0 Fax : +82-2-958-9234
E-mail : sasangin@khu.ac.kr

I. 緒論

적백하오관중탕은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가운데 하나로 四體倦怠, 小便不快, 陽道不興, 將有浮腫之漸者로 요약되는 소음인 리병 태음증을 치료하는 처방이다¹⁾.

적백하오관중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관중탕 계열의 기존 연구를 보면, 동물 실험을 통하여 뇌 혹은 간조직에 미치는 영향²⁾, 급성신부전에 미치는 영향³⁾, 혈청학적 분석에 기반한 노화억제효과^{4,5)} 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 인간 간아세포종 세포의 세포자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⁶⁾가 이루어진 바 있다. 더불어, 화병⁷⁾, 간경변 환자의 치험례⁸⁾, 그리고 적백하오관중탕 변방을 이용한 88인의 치험례⁹⁾ 등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적백하오관중탕에서 적백하수오를 병용하는 역사에 관한 연구¹⁰⁾가 있었다. 하지만 적백하오관중탕의 기원과 변천, 그리고 구성원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임상에서 소음인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적백하오관중탕의 기원과 변천, 그리고 처방의 구성원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소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研究方法

문헌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에서 발행한 2009년도 『四象體質科 臨床便覽: 四象醫學 文獻集 (改訂版)』¹¹⁾을 기준으로 하였다.

-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이하 『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이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이하 『辛丑本』)에서 적백하오관중탕과 관련된 조문을 찾아 분석한다.
- 『東醫四象新編』(이하 『新編』)에서 관중탕을

1)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赤白何烏寬中湯
白何首烏 赤何首烏 良薑 乾薑 青皮 陳皮 香附子 益智仁 各一錢 棗二枚
治四體倦怠 小便不快 陽道不興 將有浮腫之漸者 用之

찾아 분석해 본다.

- 『東醫寶鑑』에서 본초에 관한 효능에 참고하였다.

III. 研究結果

적백하오관중탕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원방으로 는 장중경의 『傷寒論』 가운데 사심탕 3종, 『東醫寶鑑』의 목향순기산과 관중환이 있으며, 변천방으로 는 『甲午本』의 강출과적탕이 있다. 각 처방의 약재 구성과 주소증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1. 赤白何烏寬中湯 기원

1) 張仲景의 『傷寒論』

『辛丑本』에서는 관중탕을 곽향정기산, 향사육군자탕, 소합원 등과 더불어 사심탕의 변제라고 밝히고 있다²⁾.

『辛丑本』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二十三方」에는 반하사심탕,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의 세 가지 사심탕이 소개되고 있다. 3종의 사심탕 구성을 비교해 보면, 태음인 약재에 해당하는 황금을 제외하고 인삼, 건강, 반하, 생강, 감초, 대조의 6종 약재가 3종의 사심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萬病回春』의 목향순기산의 구성과 비교해보면, 위의 6종 약재 가운데 인삼을 제외한 나머지 5종이 목향순기산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마 저작에 등장하는 관련 변천방과 사심탕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甲午本』의 강출과적탕, 그리고 『辛丑本』의 적백하오관중탕에서 건강, 대조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동시에, 인삼이 백하수오로 대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종의 사심탕이 공통적으로 치료하는 병증은 心下痞로 요약될 수 있다. 心下痞는 심하 부위가 그득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으며, 복진을 할 때 심하 부위의 기육이 압력을 가함에 따라 손과 함께 부드럽게 들어가는 증상이다.

사심탕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제마는 소음인의

2)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裡寒病論」
7-12 藿香正氣散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元 皆張仲景瀉心湯之變劑也

Table 1. Compositions of Original and Changed Prescriptions and Indications of Jeokbaekhaogwanjung-tang

張仲景 傷寒論			宋元明 三代醫家		甲午本	辛丑本	藥性歌 ¹²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萬病回春	醫方類聚	薑朮破積湯	赤白何烏寬中湯	
人蔘1.5*	人蔘1.5	人蔘1	木香順氣散	寬中丸	白何首烏1	白何首烏1 赤何首烏1	補脾和脾
乾薑1	乾薑1.5	乾薑1.5	乾薑0.3 青皮1 陳皮1 香附子1	良薑10 乾薑10 青皮10 陳皮10 香附子20	良薑1 乾薑1 青皮1 陳皮1	良薑1 乾薑1 青皮1 陳皮1 香附子1 益智仁1	溫肉理 錯綜脾氣之參伍勻調 開脾之胃氣而消食進食
大棗2枚	大棗3枚	大棗3枚	大棗2枚 厚朴1 枳殼1 木香0.5		大棗2枚 厚朴1 枳實1 木香1 大腹皮1	大棗2枚	開脾之胃氣而消食進食
半夏2 生薑3片 甘草1.5	半夏2 生薑2 甘草1	半夏1 生薑7片 甘草2	半夏1 生薑3片 甘草0.3	蒼朮20	甘草0.5 蒼朮1 白朮1 白芍藥0.5 獨頭蒜1		
			烏藥1	烏藥20 三稜10 蓬朮10 神麴10 茴香10 麥芽10			
黃芩1.5 黃連0.5	黃芩0.5 黃連1	黃芩1.5	縮砂0.5				
病發於陰而反下之因作痞 傷寒嘔而發熱者若心下滿不痛 此爲痞 此方主之 胃虛氣逆者亦此方主之	下後下利日數十行 穀不化 腹雷鳴 心下痞硬 乾嘔心煩 此乃結熱 乃胃中虛 客氣上逆故也 此方主之	汗解後胃不和 心下痞硬 脇下有水氣 腹中雷鳴 下利者 此方主之	治 中氣病 中氣者 與人相爭 暴怒 氣逆而暈倒也 先以薑湯救之 甦後用此藥	治 七癘八瘕 五積六聚 痰癖 氣塊 胸腹脹痛 面黃 肌瘦 一切沈滯之疾	治 少腹硬滿 胸間怕寒 ○ 嘔吐, 泄瀉, 胃氣虛弱, 及食滯, 黃疸, 下利清水症	治 四體倦怠 小便不快 陽道不興 將有浮腫之漸者	

* 약재명 옆의 숫자는 용량을 의미하며, 단위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것은 錢을 생략한 것임.

心下痞가 발생하는 원인을 ‘胃弱’이라고 하였다.³⁾

2) 宋元明 三代醫家

(1) 『東醫寶鑑』의 목향순기산은 공신의 『萬病回春』에 처음 등장한다. 목향순기산을 구성하고 있는 건강, 청피, 진피 등은 『甲午本』의 강출파적탕과 신축본의 적백하오관중탕에서 그대로 계승하여 사

3)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裡寒病論」 7-11 論曰 病發於陰而反下之云者 病發於胃弱 當用 藿香正氣散而反用大黃下之之謂也.

용하고 있으며, 특히 후박, 지실, 목향, 대복피는 강출과적탕에만 사용되고 적백하오관중탕 원방에는 빠져 있으며, 강출과적탕에는 없던 향부자가 새로이 『辛丑本』에서 가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향순기산은 中氣證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中氣證이란 타인과 다투는 와중에 갑자기 폭급하는 怒氣를 이기지 못하여 氣가 역상하고, 이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졸도하는 증상을 의미한다⁴⁾.

(2)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가운데 적백하오관중탕의 방해를 붙이고 있는 부분을 보면 『醫方類聚』에 소개된 관중환(혹은 관중탕)을 들어, “少陰人 小便不快 陽道不興 四體倦怠 無力者 用之 必效 百發百中”의 효능을 가진다고 말하였다⁵⁾.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를 보면, 관중환의 양강, 건강, 청피, 진피, 창출의 5종이 강출과적탕에, 양강, 건강, 청피, 진피, 향부자의 5종이 적백하오관중탕에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각 처방에서 양강, 건강, 청피, 진피의 사용 비율이 등분되어 있는 점 또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赤白何烏寬中湯의 변천

1) 『甲午本』의 薑朮破積湯

『甲午本』의 강출과적탕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 가운데, 백하수오, 양강, 건강, 청피, 진피, 대조의 6종은 적백하오관중탕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후박, 지실, 목향, 대복피의 4종은 적백하오관중탕에서는 빠지고 적백하오관중탕의 변방인 십이미관중탕으로 이어졌으며⁶⁾, 감초와 이출, 백작약과 독두산은 『辛丑本』 이후의 관중탕 계열로 계승되지 않았다.

(1)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

四方」 가운데 백하수오이중탕 조문에서 이제마는 인삼과 백하수오를 비교하고 있다. 첫째, 인삼이 있으면 인삼을 사용하고, 인삼이 없는 경우에만 백하수오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둘째, 백하수오가 인삼에 비하여 溫補之力이 크고 淸越之力이 작기 때문에 인삼을 2돈 이상 써야 할 때는 반드시 인삼을 사용하고, 백하수오로 대용하지 못하게 하였다⁷⁾.

(2) 독두산(혹은 대산)은 통마늘이다. 『甲午本』 중 「新定 少陰人 病應用要藥 二十二方」의 마지막 부분에서 생부자를 ‘非好藥’이라 하여 5푼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부자 대신 독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두산 3돈을 부자 1돈과 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

『東醫寶鑑』에서 독두산 단방에 관련한 조문을 찾아보면, 「內景篇」大便, 「雜病篇」積聚의 두 군데서 등장하는데, 「湯液篇」菜部에서는 독두산의 효능에 대하여 散癰腫, 除風濕, 去瘴氣, 爛疥癬, 破冷, 除風, 健脾溫胃, 止霍亂, 轉筋, 辟瘟疫, 療老癩, 去蟲毒, 療蛇虫傷한다고 요약하고 있다.

한편, 이제마는 『辛丑本』에서 장중경의 승기탕 지제 오용을 비판하며, 소음인 胃家實證에 과두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⁹⁾. 이와 관련하여 『辛丑本』 가운데,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을 참고하면, 온백원, 장달환, 삼릉소적환, 비방화체환, 삼물백산, 여의단의 과두약 6방을 확인할 수 있다.

7)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白何烏理中湯 有人蔘 則用人蔘 無人蔘 則用白何首烏 白何首烏 與人蔘 性味相近 而淸越之力 不及 溫補之力 過之 不無異同之處 險病 危證 人蔘二錢以上 不可全恃 白何首烏代用 古方經驗不多 藥材生疎故也 然 此一味 必不可遺棄於補藥中 而古方 何人飲 用白何烏五錢治 瘧病

8) 『甲午本』 「新定 少陰人 病應用要藥 二十二方」 少陰病極重証 用炒白朮 炮乾薑 生附子而 生附子非好藥也 不可過五分…(중략)…附子 或以獨頭蒜代用…(중략)…獨頭蒜三錢 可代附子一錢

9)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裡表熱病論」 6-26 論曰 右論 皆以張仲景大承氣湯 始作備而可用 不可用時候 難知 故 紛紜多惑而始知張仲景之不可信也 張仲景大承氣湯 元是殺人之藥而非活人之藥則大承氣湯 不必學論. 此胃家實病 不更衣發狂證 當用巴豆全粒 或用獨蔘八物君子湯 或先用巴豆 後用八物君子湯以壓之.

4) 『東醫寶鑑』 「內景篇」, 氣:中氣 回春曰 中氣者 因與人相爭 暴怒氣逆 而暈倒也 先用薑湯 灌救甦 後用木香順氣散

5)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赤白何烏寬中湯 古方 有乾薑 良薑 青皮 陳皮 等分 作湯丸 名曰 寬中湯 管治 少陰人 小便不快 陽道不興 四體倦怠 無力者 用之 必效 百發百中

6)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赤白何烏寬中湯 本方 加厚朴 枳實 木香 大腹皮 各五分 則又有通氣脉之功力

Table 2. Chapters and Items on Polygonum Multiflorum Appearing in 『Donguibogam』

篇	目	出典
内景篇	身形	入門
	精	入門
外形篇	肉	本草
	脉	入門
	筋	本草
	足	入門
	毛髮	本草
雜病篇	虛勞	入門
	雜方	本草

(3) 강출과적탕에서는 『醫方類聚』의 관중환에 들어가 있던 창출이 그대로 사용되고, 여기에 백출이 1돈 가미되어 이출이 모두 사용되었다.

2) 『辛丑本』의 赤白何烏寬中湯

(1) 『辛丑本』에 등장하는 적백하오관중탕의 도드라진 특징은 강출과적탕에서 가미한 백하수오에 이은 적하수오의 가미로부터 드러난다.

하수오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東醫寶鑑』에서 하수오 단방이 등장하는 조문을 찾아본 결과, 「湯液篇」을 제외하고, 『醫學入門』과 『本草』를 통해 인용한 아홉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단방이 나오는 편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한편, 『東醫寶鑑』 「湯液篇」에서는 적하수오와 백하수오의 구분에 대하여, 백하수오는 암것, 적하수오는 수컷의 상을 취하고 있으며, 약을 쓸 때는 둘을 동시에 써야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¹⁰⁾

(2) 『辛丑本』의 적백하오관중탕에는 이전의 기원방에서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익지인이 1돈 추가되었다.

10) 『東醫寶鑑』 「湯液篇」, 草部(下)

蔓紫 花黃白 葉如薯蕷而不光 生必相對 根大如拳 有赤白二種 赤者雄 白者雌 根形如烏獸山岳之狀者 珍也○春末夏中初秋候清明日 兼雌雄採之以竹刀或銅刀 去皮薄 切蒸暴 一名交藤 一名夜合 一名九陳 藤終 始勿犯鐵 忌食 蔥 蒜 蘿蔔 猪羊血 無鱗魚 凡 修合藥 須雌雄相合喫 有驗<本草>

IV. 考 察

1. 赤白何烏寬中湯의 기원

1) 『醫方類聚』의 寬中丸

관중환은 적백하오관중탕의 기본방이 된다. 특히 양강, 건강은 중초의 寒을 다스려 溫胃하고, 진피, 청피, 향부자는 滯氣를 내려 降陰한다.

무엇보다 관중탕 계열의 ‘寬中’이라는 처방명이 『醫方類聚』의 관중탕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관중탕 계열이 소음인 리병 태음 증 환자의 中氣를 부드럽게 풀어 順氣, 行氣하는 것을 기본적인 치료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醫方類聚』의 관중환에 들어간 양강, 건강, 청피, 진피, 향부자의 조합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약제의 조합이라는 점을 이제마가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약성이 약하거나, 소음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약제를 제외하고 새로운 몇 가지 약제를 추가하여 동무식의 새로운 ‘寬中’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萬病回春』의 木香順氣散

목향순기산의 건강, 청피, 진피, 향부자는 관중환과 더불어 적백하오관중탕의 기원 약제가 된다.

목향순기산은 中氣證을 치료한다고 했다. 목향순기산을 구성하는 약제들의 동무약성가를 확인해 보면 목향, 향부자는 開脾之胃氣而消食進食, 진피는 錯綜脾氣之參伍句調, 반하는 消脾痰, 사인

은 正氣定魂, 건강은 溫肉理, 감초는 固脾立脾함을 알 수 있다¹². 곧, ‘順氣’라는 처방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목향, 향부자의 行氣之劑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풀어주고, 더불어 반하, 진피를 사용하여 虛寒의 원인을 제거하며, 건강, 감초를 이용하여 中氣를 따뜻하게 하고, 더불어 사인을 이용하여 정신을 안정시킨다. 따라서 목향순기산의 ‘順氣’로부터 中氣를 ‘너그럽게, 혹은 넓게’한다는 관중탕에서의 ‘寬中’이라는 처방명이 지닌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다.

3) 張仲景 『傷寒論』의 瀉心湯

관중탕이 사심탕의 변제임을 보이기 위해, 세 가지 사심탕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 가운데 특징적인 소음인 약재를 구별해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심탕 처방의 정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이제마는 사심탕이 치료하는 心下痞가 소음인에게 발생하는 원인을 ‘胃弱’에서 찾고 있는데, ‘胃弱’은 곧 胃腑의 虛寒證을 의미한다. 곧, 반하는 消脾痰하고, 인삼은 補脾和脾하며, 건강은 溫肉理하고, (炙)감초는 固脾立脾한다는 『東武遺稿』의 약성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¹², 사심탕은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반하를 통해 중초 虛寒證의 원인이 되는 寒濕을 제거하는 것을 心下痞 치료의 출발로 삼고 있다. 이에 동무는 인삼, 건강, 반하, 생강, 감초, 대조로 요약되는 사심탕류의 溫胃 정신을 광향정기산, 향사양위탕, 강출관증탕으로 이어받았다. 곧, 양명증과 태음증을 겸하고 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광향정기산과 향사양위탕에는 반하를 남겨두었지만, 태음증만을 치료하는 관중탕에서는 반하를 사용하지 않는 동시에, 인삼을 백하수오로 대체하여, 관중탕의 溫胃而降陰 효과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2. 赤白何烏寬中湯의 변천

1) 『甲午本』의 薑朮破積湯

강출파적탕은 두 가지 면에서 적백하오관중탕의 기원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백하수오가 새로이 사용되어 관중탕 계열 처방의 성격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둘째, 이전의 기원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두산을 가미하여 처방에 새로운 방성을 부여하였다.

(1) 白何首烏의 加味

사심탕에서 사용되었던 인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하수오를 강출파적탕에 가미한 까닭은 첫째, 인삼이 당시에 굉장히 귀한 약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삼이 없는 경우에만 백하수오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응에는 補脾和脾¹²하는 인삼의 효능이 백하수오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백하수오를 2돈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까닭은 인삼과 백하수오가 지닌 溫補之力和 清越之力の 차이에서 기인한다. 인삼은 清越之력이 강하므로 상초, 중상초를 주관하고, 백하수오는 溫補之력이 강하므로 중하초, 하초를 주관한다고 할 때, 인삼과 백하수오의 효능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각 약성이 발휘되는 방향성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인삼을 3돈 이상 사용해야 경우에는 반드시 인삼을 사용하여 치료상의 미세한 차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한 까닭이다.

앞서 밝혔듯이, 관중탕이 장중경 사심탕의 변제라고 할 때, 溫胃의 사심탕 정신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인삼이 아닌 백하수오를 대용하여 溫補之력을 보다 강력하게 발휘, 소음인의 중하초와 하초에 걸친 陽氣의 약화를 단호히 방어하고자 한 것이다.

(2) 獨頭蒜의 加味

독두산을 부자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마의 표현으로부터 강출파적탕에 이전에 없던 독두산이 가미된 까닭을 유추해낼 수 있다. 곧, 독두산을 강출파적탕에 쓴 첫 번째 이유는 부자가 가진 독성 때문이다. 脾元帥之藥¹²로 기능하는 부자의 속성을 닮은 마늘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소음인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를 보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독두산이 부자에 비해 陽氣 공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두산 3돈으로 부자 1돈의 효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부자뿐 아니라, 파두 사용례를 통해 독두산 가미의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앞서 소음인 胃家實證에 승기탕지제가 아닌, 파두를 써야 한다고 지적한 『辛丑本』의 조문을 인용한 바 있다. 그 까닭은 승기탕의 균약에 해당하는 대황은 寒性瀉下之劑로 분류되는데, 소음인에게 이를 사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陽煖之氣의 추가적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¹¹⁾ 더불어 소음인의 胃家實證이 당 체질의 ‘偏小之臟’에 해당하는 脾局의 溫氣가 아직 그 힘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¹²⁾, 소음인의 脾局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대황의 사용을 자제하고, 脾局의 陽氣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積滯를 해결할 수 있는 熱性瀉下之劑, 枳實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枳實 사용의 의미를 앞서 발췌한 『辛丑本』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인용된 枳實약 6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곧, 枳實이 포함된 온백원, 장달환, 삼릉소적환, 비방화체환, 삼물백산, 여의단의 육종 처방의 주소증이 소음인의 胃中 溫氣와 大腸 寒氣가 엇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본다면, 枳實과 大腸의 寒氣를 瀉下하면서 동시에 胃腑의 溫氣가 하강하여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약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독두산은 단순한 부자 대용제의 의미를 넘어 枳實의 효능을 대신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곧, 脾陽을 補하는 동시에, 大腸의 寒氣를 몰아내어 下痢를 멈추고자 독두산이 가미된 것이다.

2) 『辛丑本』의 赤白何烏寬中湯

(1) 白何首烏, 赤何首烏의 加味

앞서 요약한 『東醫寶鑑』의 下劑 단방 조문에 나타나는 下劑 효능의 대강을 살펴보면, 毛髮, 筋骨, 骨髓 등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腎精을 補하는 것과 관련한다. 따라서 소음인의 태음증 가운데 四體倦怠, 小便不快, 陽道不興, 將有浮腫之漸者로 요약되는 제 증상을 해결하는 적백하오관중탕에서 백하수오와 적하수오를 동시에 사용하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백하수오를 사용하여 中氣를 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하수오를 사용하여 하초의 寒氣를 몰아내어 궁극적으로 裏陰降

氣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두 가지 색깔의 下劑가 각각 암수가 되어, 함께 사용할 때 그 효능이 좋다고 한 것은 백하수오와 적하수오가 각각 陰陽의 待對를 이루며, 서로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주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즉, 『東醫寶鑑』이 下劑를 사용하여 腎精을 보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이를 체질의학에서는 腎局(腎-大腸)의 하초를 주관하는 약재로 下劑를 분류한 것이다.

결국, 관중탕 계열에서 백하수오가 인삼의 補脾和脾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인삼의 淸越之力보다는 溫補之力을 보다 강하게 발휘하여 소음인의 溫胃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적하수오는 이를 보좌하며 소음인의 강음 곧, 裏陰降氣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적백하수오가 적백하오관중탕의 중심 약제가 되어 소음인 대장의 寒氣를 몰아내어 陽煖之氣를 회복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2) 益智仁의 加味

익지인을 가미한 까닭에 대해서는 『辛丑本』의 한 단락을 통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이제마는 익지인이 소음인의 利水之劑 가운데 하나로서¹³⁾, 관중환에 오령지와 익지인을 가미하면 腹痛에 神效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곧, 익지인을 가미한 까닭은 利水を 통한 滯積간의 水氣를 제거하여 腹痛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적백하오관중탕 변천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하면 Figure 1과 같다.

3. 赤白何烏寬中湯의 구성원리

적백하오관중탕의 기원과 변천과정에서 발견한 본 처방의 구성원리를 정리하면 Figur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거시적으로 백하수오와 적하수오는 서로 對待를 이루며 소음인 태음증 환자의 溫胃를 목표삼고

11)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裡表熱病論」
6-20 蓋此方治少陰人 太陽病轉屬陽明 不大便五六日 日晡發潮熱者可用而其他則不可用也
12)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裡表熱病論」
6-20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 脾不弱也 大便秘燥則 胃實也

13)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裡寒病論」
7-67 若欲利小便 則 乾薑, 良薑, 陳皮, 青皮, 香附子, 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14)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赤白何烏寬中湯
又 寬中丸 本方 加 五靈脂 益智仁 各一錢 則治腹痛 神效



Fig. 1. Origins and changes of Jeokbaekhaogwanjung-t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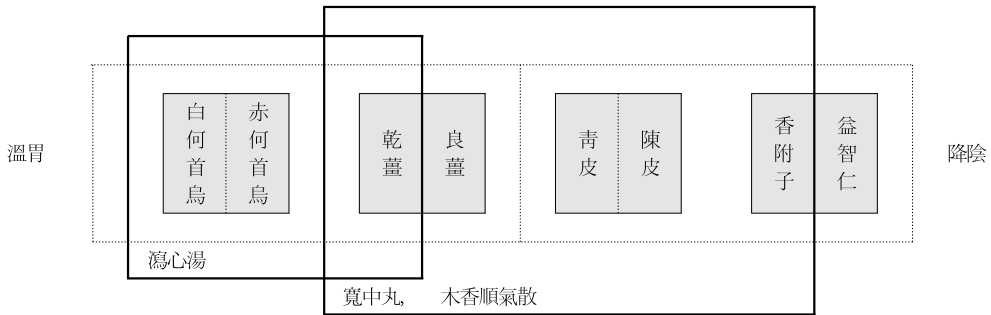


Fig. 2. Compositive principle of Jeokbaekhaogwanjung-tang

있다. 이제마는 사심탕의 인삼을 백하수오로 대용하고, 여기에 적하수오를 붙여 사용함으로써, 溫補之力을 강화하는 동시에 兩 하수오 내의 溫胃/降陰의 미시적 역할 구분을 통한 완성된 溫胃에 도달하고자 한다.

2) 건강이 부분적으로 장중경 사심탕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지만, 적백하오관중탕을 구성하는 양강, 건강, 청피, 진피, 향부자는 목향순기산과 관중환의 順氣之劑로부터 기원한다. 특히 건강과 양강은 백하수오와 적하수오의 온위를 돕고, 청피와 진피는 강음을 주도하는 향부자, 익지인의 역할을 완성시킨다.

3) 적백하오관중탕의 익지인은 소음인의 利水之劑로서 『辛丑本』에 와셔야 가미되는 새로운 약재에 해당한다. 익지인은 향부자와 짝을 이루어 소음인의 降陰, 곧 裏陰降氣를 주도한다.

본 연구는 적백하오관중탕을 구성하고 있는 약제를 중심으로, 기원과 변천 과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처방의 구성원리를 살피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과제들이 여전히 산재한다. 특히, 적백하오관중탕의 기원과 변천과정에서 발견

되고 있는 적백하오관중탕 파생방들의 기원과 변천 과정, 그리고 구성원리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목향순기산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후박, 지실, 목향, 대복피의 약재가 강출파적탕으로 이어졌지만, 적백하오관중탕에서는 빠지고 이의 변방 가운데 하나인 십이미관중탕에서 다시 가미된 이유, 또한 관중환의 창출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 강출파적탕에 백출이 새로 가미되는 이유와, 이를 바탕으로 이후 강출관중탕이 파생되는 배경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이외의 적백하오관중탕 파생방에 해당하는 인삼백하오관중탕과 당귀백하오관중탕, 그리고 복통에 쓰는 관중환의 기원과 변천과정, 구성원리에 대해서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結 論

1. 적백하오관중탕의 기원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적백하오관중탕은 『醫方類聚』의 관중환, 『萬病回春』의 목향순기산으로부터 건강, 양강, 청피, 진

피, 향부자 등의 順氣之劑를 통한 寬中의 方성을 이어받는 동시에, 사심탕의 변제로서 濇胃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2. 적백하오관중탕의 변천과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적백하오관중탕의 원형은 『甲午本』의 강출과 적당이다. 강출과적당은 처음으로 인삼 대신 백하수오를 사용하여 적백하오관중탕으로 이어졌으며, 더불어 부자의 대용제인 동시에 나아가 파두의 약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독두산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적백하오관중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 적백하오관중탕은 강출과적당의 백하수오 사용에 이어, 적하수오까지 가미함으로써 裏陰降氣를 통한 온위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으며,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익지인을 가미하여 利水에 의한 降陰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3. 이를 바탕으로 적백하오관중탕의 구성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적백하오관중탕은 적백하수오가 건강, 양강의 도움을 받아 濇胃하며, 청피, 진피, 향부자, 익지인은 降陰을 주도하여 소음인 태음증 환자의 陽煖之氣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VI. 參考文獻

- Jung BY, Song IB. A study on antioxidative effects of Sipyimiguanjung-tang and Osuybujayijung-tang of Korean traditional prescriptions for soeum constitutes in brain and liver of rat.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2):227-250. (Korean)
- Lee KY, Kim Hs, Bae YC, Lee SM, Kim KY, Won KS. Study in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Sipyimiguanjung-tang and Osuyubujaju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1):90-108. (Korean)
- Lee HS, Kim IH, Kim HS. The effects of Hyeong-bangjihwang-tang and Sibimikwanjung-tang in glycerol-induced renal failure in rats.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3):103-112. (Korean)
- Sun TC, Ahn TW. Anti-aging effects of Sipyimigwanjung-tang in aged Rats.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98-110. (Korean)
- Choi YW, Anh TW. Studies of Sipyimigwanjung-tang that get weight, hematology, biochemistry change by wister rat's aging. Thesis collection of Institute of Korean Med. of Daejeon Univ. 2004;13(2):317-326. (Korean)
- Song SY, Bae YC, Lee SM, Kim KY, Joo JC, Ko KD, et al. Apoptotic effects of Sipyimigwanjung-tang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human hepatoblastoma cells. J Sasang Constitut Med. 2005;26(1):46-58.
- Shin DY, Song JM, Kim YW. A case report about the treatments of soeumin Hwabyung with insomnia, diarrhea and flaring up.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2):107-114. (Korean)
- Han DY, Park JH, Lee JY, Kim JC, Song CH, Sun SH, et al. A case report of jaundice in liver cirrhosis with Sipyimiguanjung-tang Gamib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3):135-141. (Korean)
- Im DH, Kim DR. The study about the clinical use of Gwanju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30-42. (Korean)
- Yang CG. About the history of the combined use of Jeokbaekhasuo(赤白何首烏) in Lee's Jeokbaekhaogwanjung-tang(赤白何烏寬中湯). J Sasang Constitut Med. 1995;7(1):303-304. (Korean)
- Song IB, Koh BH, Kim DR, Lee EJ, Lee SG, Lee JH. Clinical handbooks of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iterature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 2009. (Korean)
- Park SS. The study on the 『Dongmuyooogo yaksung-ga (東武遺稿·藥性歌)』.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2):8-27. (Korean)
- Heo Joon. The original dongeuibogam. new ed. revised and enlarged. Seoul: Namsandang. 1998. (Korean)
-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colleges of oriental med. in Korea (compilation). The revised and enlarg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nd ed. Seoul: Jipmoondang. 2008. (Korean)